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눅) 연중 제30주일

2023년 10월 29일 (제2054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한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탈출기 22,20-26

화답송 시편 18(17),2-3 7.3ㄴㄷ-4.47과 51(◎ 2)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1,5ㄴ-10

복음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2,34-40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성가]	8시	입당 48	봉헌 211	성체 152	파견 82		
	11시	입당 46	봉헌 214	성체 156, 186	파견 271		
연중 제30주일	10월 29일(일)		10월 31일(화)	11월 1일(수)	11월 2일(목)	11월 3일(금)	11월 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이명련 파트리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꾸리야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김종식 요한 오자영 호주아네스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꾸리야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10월 목주기도 성월

- 매 미사 30분 전에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 다섯째주(10/29):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 11월 위령성월

-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연옥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 나도 맞이하게 될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 주일 8시/11시 미사 30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는 창으로, 2 양식(짧은 연도)로 바칩니다.

■ 11월 위령 성월 묘지 미사

- 11월 2일(목) 오전 11시, **Hayward Sepulchre** : 첫째 미사
 - 헤이워드 묘지 관리 측에서 지정한 장소 Mausoleum
 - 미사 30분전에 창 연도 있습니다. (2양식- 짧은 연도)
- 11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 본당 : 셋째 미사
- 11월 4일(토) 오후 2시, Gate of Heaven : 둘째 미사
 - 미사 30분전에 창 연도 있습니다. (2양식- 짧은 연도)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11월 4일(토) 11시 미사 : 꾸리아

■ 11월 성시간

11월 9일(목) 저녁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 어린이 영어 미사

- 11월 11(토), 오후 3시

■ 봉사자의 날

- 취지 : 한 해 동안 본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한 모임.
- 일시 : 10월 29일(일), 오후 4시, 친교실
- 주최 : 사목회
- 대상 : 본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

■ 본당 탁구대회 및 젠가대회(탑무너뜨리기)

-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본당 행사입니다.
- 주최 : 평신도협의회
- 일시 : 11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 라플티켓 판매 : 1등(50인치 TV)

■ 성경 경시대회

- 일시 :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 대회방식 : 경시대회 범위는 신약성경
 - 1) 전 신자 OX 게임
 - 2) 구역대항 : 각 구역에서 대표자 3명 선출

■ 성경 통독

- 11월 바오로 서간(읽기분량 : 로마서 4.1-7,25)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은 오클랜드 구역에서 단품으로 준비했습니다.
- 밥나눔 티켓은 3장입니다.**
- 다음 주일(11월 5일)은 첫째 주일인 관계로 밥나눔은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철오 - 오일사철)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율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이안 Franks, 손한석 가브리엘

■ 모임 및 회의

- 구역장회의 : 11/5(일), 12:30 교육관 106호
- 사 목 회 의 : 11/5(일) 1:30 교육관 106호
- 캐스트로벨리구역 : 10/29(일) 오후 1시 대건관 소망방
- 리치몬드/버클리구역 : 10/29(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레베카(11/1): 이다은.
- * 율리안나(11/1): 황정기
- * 실비아(11/3): 김옥희, 강선진, 박명호
- * 가롤로(11/4): 김상실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법의 성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는 유다의 율법을 배격하고 오로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든 편협한 맹신주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른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기괴한 선언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연대의 가치를 담아냅니다.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로마 교회는 아직 뿌리가 채 내리지 못한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로마 공동체는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전 유다 문화 중심의 공동체로 돌아가길 원했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자연스러워졌고 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58년경)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로마를 생각하며 편지를 작성합니다.

바오로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믿음'의 가치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법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단죄로 제 영역과 이념, 그리고 계급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는 얼마간의 보탬이 되나, 서로의 생각이 달라 대립하고 단절된 이들의 일치와 연대를 위해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3,19-20) '법대로 하라!'는 말만큼 차가운 인간 관계는 없을 테니까요. 믿음의 본디 가치는 법과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법의 외연을 넓혀 그 한계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법의 한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질문을 법에 던지면서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달음질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바오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고집어 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본디 가치를 실제 살아간 인물 중 단연 최고봉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거슬러' 희망했습니다.(4,18. 우리말 번역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인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과 신념에 관한 희망을 거슬러 하느님께서 가리키신 미지의 삶을 희망하며 묵묵히 살아갔지요. 어찌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자 타자와 타지를 향한 씩씩한 여행이었습니다. 믿음의 끝은 모든 이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동단결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계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해의 삶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화해의 여정은 예수님의 수난 사건 안에서 완성되었지요.(5,11)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화해의 삶을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화해의 삶을 끝마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은 거칠고 외로웠지만 그럼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만남을 어김없이 이어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지나가는 궤적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의로움을 발견합니다. 바오로가 제시한 몇몇 구절은 믿음과 의로움이 낱실과 씨실처럼 서로 엮이여 고운 무늬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3,22)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15,7)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12,18)

한 개인의 삶은 소중하되, 개인으로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도, 의로움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의로움은 함께 나누는 저마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화해를 통한 평화로운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은 획일화된 규범이나 법규, 혹은 시대의 주류가 외치는 대중적 신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름으로 갈등을 겪고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지언정, 사회라는 큰 마당에 서로의 생각을 던지고 공유하며 다듬고 나누는 '진지한 투쟁'의 실천이 평화와 거룩함과 의로운 삶의 근간입니다. 사회적 투쟁은 '빨갱이나, 태극기냐'를 묻는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아프지만 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책무입니다. 참되고 이성적이며 진실된 것을 찾아가는 예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12,1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로기코스'는 참되고 진실하며 이성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사회학자들은 근대의 시작을 '자유로운 개인의 출현'으로 봅니다. 법이나 권력에 짓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대는 봉건시대였지요. 코로나19의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 우리는 근대에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임금님을 모시는 봉건사회에 속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빈곤한 자아 정체성과 천박한 집단주의적 사고는 봉건 사회에서나 어울리지요. 사회가 한편에 서서 다른 편을 비난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것들에 저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단죄와 비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한계를 넘어 이웃과 사회를 챙기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5,17)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7,12) 소극적인 절제가 아닌 적극적인 실천으로 타인을 향한 배려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믿음이고 법없이 살되 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의로움을 만나는 건, 서로 달라 내치고 비켜가고 피해가는 이들과 맞잡은 손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여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6명	166명	202명

주일 헌금		2차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미사	교중미사	8시	11시							
[교무금] 이덕용(9-10), 황현숙(10-12), 이범준(10), 강신호(10), 김원조(10-12), 이명란(10-12), 양우선(9-12), 팽현팔(9-10), 김학철(11-12), 신공진(10-12), 허순구(7-12), 최정안(11-12), 최대연(9-10), 조관식(5-9), 윤순의(9-10)					이덕용	이옥경	이덕용 이명란		이명란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10/29(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1/2(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송희성 마티아	송일란 베로니카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전덕천 안드레아	박인규 시몬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유춘성 데레사	박인규 시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황문환 마르코	박인규 시몬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채인국 다니엘	박인규 시몬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연	김양월 마리아	박인규 시몬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김종운 세실리아	박인규 시몬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연	박병준 스더왕	박인규 시몬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연	박창대요셉/최순석안나	박인규 시몬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안승찬/강석금	박인규 시몬
	연	김마르코	가족		연	안중근토마/명균베드로	박인규 시몬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연	안성모 광모 덕모	박인규 시몬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연	김관숙 크리스티나	김학철 요한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모든연옥영혼을위하여	윤세레나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생	김아레 카타리나	김학철 요한
	연	최순일 요셉	허세실리아		생	김선희 막달레나	김학철 요한
	연	송희성 마티아	김문환 베드로		생	김학철 요한	김학철 요한
	연	오연식 오마리아	양엘리자벳		생	유윤미 리디아	김학철 요한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유윤미 리디아	전수산나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생	김용식 파스칼	김발바라
	생	조에드워드 소피아	조분도 리디아				
	생	김정희 올리엠타	김엘리사벳	11/3(금)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김아롱 가족	김엘리사벳				
	생	김영순 쟈마	권재복 마가렛	11/4(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안 Franks	권재복 마가렛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이안 Franks	박미숙 세실리아		연	이남희 세레나	가족
	생	이안 Franks	김쟈마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용식 파스칼	지영남 요한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10/31(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송성호 아벨	송아네스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정명	정일양 안드레아		연	옥제병 요한	허세실리아
	연	송희성 마티아	송일란 베로니카		생	이안 Franks	김쟈마
					생	이명진 닷 가정	이명란 아네스
11/1(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연	송희성 마티아	윤세레나		생	성가단 활성화	성가단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신제이슨 세실리아가정	천종욱 다니엘
	연	모든성인/연령 영혼	김케넷가족		생	발바라 부르스 아론조	전수산나
	생	미미 헬렌 페리	김엘리사벳		생	최쟈마 수녀님	염파트리샤
					생	전지형 안렉산델	전수산나
					생	허두근 데레사	허세실리아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리 ☎(510)236-0550 강 요 한</p>	<p>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p>
--	---	--	--	--